기본연구
2025-21

이슈페이퍼

여전히 계층 간 사다리는 존재하는가?

- 교육을 통한 세대 간 직업지위 이동 분석

안준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기본연구
2025-21

이슈페이퍼 2025-03

이슈페이퍼

여전히 계층 간 사다리는 존재하는가?

- 교육을 통한 세대 간 직업지위 이동 분석

안준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여전히 계층 간 사다리는 존재하는가? - 교육을 통한 세대 간 직업지위 이동 분석

안준기[1)]

〈목 차〉

Ⅰ. 연구 개요 ····· 3
Ⅱ. 조사 및 분석 결과 ····· 6
Ⅲ. 정책 제언 ····· 28
참고문헌 ····· 34
Abstract ····· 36
[부록] ····· 37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계층 간 이동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이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부모의 직업위세가 자녀의 직업위세나 임금에 미치는 영향까지 범위를 넓히고, 시점별 비교를 통해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두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1차, 2차 코호트(cohort) 자료를 활용하였고, 경로분석(path analysis),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여전히 자녀 세대의 학력이나 직업위세, 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계승은 시기가 지날수록 더욱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성별에 따른 교육 및 직업 성취 격차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육은 여전히 사회적 이동 통로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교육은 여전히 사회적 이동 통로로 작동하고 있지만 그 영향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 결과인 부모의 학력과 같은 비금전적 자본이 최근 세대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1)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jkahn@krivet.re.kr)

점은 정책적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을 제언하고 있다.

- 주제어: 계층 사다리, 사회 이동성,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위세, 구조방정식

Ⅰ. 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수행해 왔고,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회경제적 약자층일수록 자녀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열망이 강했으며, 이는 국제 사회에서 유례없는 높은 교육열로 나타났다.

하지만 KDI 연구보고서(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2023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는 중산층의 규모와 인식은 모두 확대되었지만 실질적인 계층 이동성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의 절대적 변화가 줄어든 것을 근거로 소득의 상향 이동 가능성 자체가 줄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층 이동이 전보다 어려워졌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조사 결과에서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28.8%에서 2019년 23.0%로 감소하여 계층 이동에 대한 기대도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계층 사다리를 통해 현재보다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인식과 실제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일부 사회학자들은 '부러진 계층 이동 사다리'라고 표현하며, 부의 세습 고착화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견고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이동(social mobility) 가능성 단절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일 수 있으며, 그 요인이 다양한 만큼 이에 대한 실증 연구 또한 다수 축적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설명되는 원인은 '교육격차'로, 고소득 가구의 자녀는 더 나은 교육기회를 가지는 반면, 저소득 가구는 교육 기회가 제한되어 향후 직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다(우광호·안준기·황성수, 2010; 안종범·전승훈, 2008).

또한 경제적 자본 부족이 그 원인으로 제시되기도 하는데, 초기 투자(예: 대학등록금, 창업자본 등)가 단절되어 상위 계층으로의 이동이 어렵다고 분석한 연구들도 존재한다(안준기·배호중, 2011). 그 외에 사회적 자본의 한계(인적 네트워크의 한계), 문화 자본의 차이 등에 대한 연구도 존재할 정도로 계층 간 사다리 관련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계층 간 사다리의 부재는 사회의 성장동력 상실 및 양극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대로 인한 사회 혼란 야기 등의 경제·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무상교육 확대, 복지 및 아동 돌봄시스템 강화 등으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일자리 훈련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선 등을 통해 일자리 이동 가능성을 높여주며, 상속세, 부의 집중 완화 정책 등을 통한 양극화 완화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의 기조하에서 계층 간 사다리에 대한 문제를 교육 및 훈련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자녀의 임금 수준으로 부의 대물림을 확인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와 차별적으로 자녀의 임금 수준과 더불어 부모와 자녀의 직업 지위(위세)를 활용하여 부의 대물림(계층 재생산)의 구조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1, 2차 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여 시점별 계층 간 사다리의 작동 양상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갖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계층 간 사다리의 존재 여부와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재작동(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력원(교육, 훈련 등)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2. 계층 간 사다리의 개념

'계층 간 사다리'라는 개념은 사회학, 교육학, 경제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사회적 이동(social mobility)과 계층구조(social stratification)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은유적 표현이다. 이러한 은유적 개념은 사람들이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다른 단계(계층)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한다. 보통 사람들의 사회적·경제적 계층(예: 하층, 중간층, 상층) 간에서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향(↓) 이동하거나 수직적(↕)으로 이동하거나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모든 경로 또는 기회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된 학술이론으로는 가장 먼저 사회이동이론(social mobility theory)을 들 수 있는데, 사회 내에 존재하는 여러 계층 사이에서 개인 또는 집단이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제약조건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세대 간 사회 이동과 교육 불평등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사회의 기회구조와 계층 대물림 현상 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Sorokin(1927)의 연구는 사회 이동에 대한 개념을 본격적으로 체계화한 것으로, 수직적 이동과 수평적 이동을 구분하여 이론화하였다. 이를 직업과 연계하여 이론화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Blau & Duncan(1967)의 연구가 있는데, 아버지의 직업과 아들의 직업 간의 상관관계를 대규모 실증연구를 통해 분석한 것으로, 구조적 이동과 순수 이동의 개념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계층 간 사다리와 관련된 이론으로는 기회구조(opportunity structure) 이론을 들 수 있다. 기회구조이론은 개인이 사회에서 성공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주어진 기회의 분포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론으로, 특히 교육, 직업, 계층 이동 등에 적용되며, 사회구조 속의 불평등한 기회 분포가 개인의 삶의 경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Cloward & Ohlin(1960)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차별적 기회구조이론을 제시하면서 기회구조가 계층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사회적 불평등에 따라 기회구조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 외에 계층 간 사다리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는 능력주의(meritocracy)와 재생산 이론을 들 수 있다. 능력주의 이론은 노력과 능력에 따라 누구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재생산 이론은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Pierre Bourdieu & Jean-Claude Passeron (1977)이 있는데, 사다리는 있으나 기득권 계층이 다음 세대로 자본(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을 재생산하기 때문에 실질적 이동은 어렵다고 비판하면서 재생산 메커니즘이 학교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계층 간 사다리와 관련된 이론 연구는 과거부터 꾸준히 연구된 주제로, 오래도록 해결하지 못한 사회 문제에서 기인한다. 관련 이론에서 나타나듯이 그 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지위 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학력이나 직업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있다.

3. 연구 방법 및 내용

한국 사회에서 계층 간 이동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계층 이동과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계층 이동 및 부의 세대 간 이전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직업지위 및 국제사회경제지위지수(ISEI)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직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변화를 실증 분석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경험과 직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1차, 2차 코호트(cohort) 자료를 활용하며,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 자녀의 교육경험(수준/투자) → 자녀의 직업성과(직

업지위 및 임금 수준) 간 직간접적 경로계수를 추정하고, 시점별 계층 간 사다리의 영향력을 비교한다.

부모와 자녀의 직업지위는 국제직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ISCO)와 연계된 국제사회경제지위지수(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ISEI)[2]로 환산하여 점수화한 후 분석에 활용한다. 분석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변수(개인, 가구, 직장 특성 등)를 통제변수로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 검토하고,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계층 간 사다리가 작동할 수 있는 정책 방안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조사 및 분석 결과

1. 관련 선행연구 검토

앞서 계층 간 사다리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관련된 이론으로 사회이동이론, 기회구조이론, 능력주의와 재생산 이론 등을 간략하게 소개한 바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관련 이론들의 실증적 확인에 있는 만큼 관련 이론에 대한 검토보다는 관련 선행연구들을 통해 분석 모형이나 변수 등에 대한 선험적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계층 간 사다리 관련 선행연구

계층 간 사다리와 관련한 한국의 최근 연구로는 이영욱(2023)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시계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 이동성의 정도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 파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KDI 자체 실태조사를 통하여 사회 이동성을 파악하고 있으며, 분석을 통해 한국의 중산층 규모와 중산층에 대한 인식과 함께, 계층 이동성에 대한 기대효과 등을 파악하고 있다. 분석 결과 중산층에 대한 인식이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이지만, 계층 이동성은 지속적으로 그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그 기대성향 또한 낮아지고 있는 것을

2) 국제사회직업지위지수는 직업지위를 지수화할 수 있다는 큰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한계점들이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예 : 소득·교육 중심의 단편적 접근, 문화 및 국가 간 차이 무시,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 등 현대 고용형태 반영 부족, 세대 및 시대 변화 반영의 어려움, 개인의 실제 계층 경험과 불일치 등).

확인하여 한국에서의 계층 간 사다리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부모의 교육과 소득 수준 등에 대한 세대 이동성과 관련된 연구로는 최필선·민인식(2015)의 연구가 있는데, 부모의 교육 및 소득 수준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KEEP(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교육 수준이 자녀의 수능 및 대학 진학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Fleurbaey and Peragine (2013)에서 제안한 기회 불균등을 계량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자녀의 학력에 부모의 교육 및 소득 수준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기회 불균등을 추정한 결과 수능 성적 및 임금 불균등에 부모의 재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여 계층 간 사다리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사한 연구로 우광호 · 안준기 · 황성수(2010)의 연구가 선행되었는데, 부모 세대의 부가 교육을 통해 자녀 세대로 이전되는 과정에 대한 실증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GOMS(대졸자 직업이동경로 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위회귀분석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세대 간 이전 효과를 구조방정식 및 경로분석(path analysis) 방식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부모의 학력이 부모의 직업과 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교육비 등에 영향을 미쳐 자녀의 학력 수준과 임금 수준을 높인다는 경로(path)를 확인하였다.

남기곤(2008)의 연구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 연구는 Iannelli(2002)의 연구에 기반하여 한국에서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 및 직업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KLIPS 1차 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변수들의 평균치를 확인하고, 이를 Iannelli(2002)의 유럽 자료와 비교 분석하고 있는데, 유럽의 분석 방법과 동일하게 자녀의 학력(고등교육 이상)에 대한 로짓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은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강한 것으로 확인(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되나,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직업지위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별다른 성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Park(2007)과 장상수(2000) 등이 있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학력의 가치가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절대적 가치 측면에서 살펴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들지만, 동일 세대 내에서 대학졸업자의 상대적 비중 등을 고려한 교육 수준의 상대적 가치

를 기준으로 보면 불평등이 누그러지거나 강해지기보다는 지속되고 있을 뿐, 최근 들어 특별히 심한 건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변수용 · 이성균, 2021; 고영우 외, 2024, 재인용).

하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받는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연구가 많다(김영미, 2016; 박병영 외, 2011).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놓는 연구들은 대략 2000년과 2010년 즈음의 특정 시점을 잡아 약 10~15년 사이의 변화를 살펴보고 부모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김위정, 2012; 장상수, 2016; Byun and Kim, 2007; 고영우 외, 2024, 재인용).

나. 직업위세 관련 선행연구

직업지위와 관련된 연구는 미국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직업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연구한 Hunt(1897)의 연구를 시초로 보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1870년과 1890년의 직업 성향을 살펴본 후 직업을 경영자와 전문직, 종교관련자, 기술자, 노동자의 네 가지 그룹으로 비교하였다.

이러한 직업을 지표로 한 연구는 에드워즈(Edwards)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이 연구에서 1910년 센서스 자료에 나타난 428개의 직업을 9개의 범주로 '사회경제적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1940년 센서스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그는 "교육이 사회적 지위의 가장 큰 요인이며, 수입이 경제적 지위의 가장 큰 요인이다(Blau and Duncan, 1967; 고영우 외 2024, 재인용)."라고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의 지표를 사회경제적 계층화로 발전시키는 노력은 Blau and Duncan(1967)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앞서 간략히 살펴본 계층 사다리의 이론적 배경에서 사회 이동성에 직업지위를 이용한 연구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교육과 수입을 고려하여 직업의 사회경제적 지수(Socioeconomic Index: SEI)를 개발하였는데, 직업에 대한 위세 조사를 통해 직업들을 excellent 또는 good으로 평가한 비율을 해당 직업 종사자들의 수입과 학력에 대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계수들을 소분류 범주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0~96점 사이로 배열하여 적용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이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직업위세, 직업지수를 측정하는 데 기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 국외의 선행연구들에 기반하여 한국의 직업지위지수를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대표적인 연구로는 유홍준·김월화(2006)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직업별 직업지위 점수를 산출하고, 지난 25년간의 한국의 직업지위 변화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직업지위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1975년에는 교육에 비해 수입의 영향력이 높았으나 2000년에는 수입에 비해 교육의 영향력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근으로 올수록 직업위세와 직업지위 간의 상관관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며 직업지위의 결정에 교육과 수입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더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한국에서의 직업지위 및 직업지위지수 연구 등을 기반으로 부모 세대의 직업적 지위가 자녀 세대에 전승되고 있다는 연구들도 진행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임창규·윤인진(2011)의 연구와 김연아·정원오(201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임창규·윤인진(2011)의 연구에서는 세대 간의 직업계층 계승 경향에 중점을 두고 아버지의 영향에 의한 아들의 첫 직업지위 획득과 이후 직업계층 유지 간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였고, 분석 결과 중간계층 이상에서 직업계층의 계승과 유지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버지의 직업계층을 계승한 경우 첫 직업을 오랫동안 유지할 뿐만 아니라 직업의 이동 횟수나 실직 횟수가 적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재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며, 가능하면 직업계층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김연아·정원오(2016)의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직업 지위(위세)의 계승이 아닌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비정규직의 세대 간 전승을 관점으로 직업지위의 이동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연구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데이터(1~8차)를 활용하여 비정규직의 세대 간 전승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이들의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비정규직이면 자녀도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직업적 지위의 세습 여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부모의 비정규직 여부는 자녀의 직업적 지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득 및 직업지위의 결정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 중 인적 자본론의 관점보다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 즉 사회계층화 현상의 한 단면이라고 보는 이중 노동시장 이론의 관점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자녀의 학습능력이나 노동시장 성과 중 어느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직업위세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직업의 계승이나 낮은 직업지위의 전승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차별적으로 부모 세대 및 자녀 세대 모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특히 기존 연구와 달리 직업위세를 고려하여 부의 세대 간 이전을 탐색함으로써 차별성을 두고자 하였다.

2.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교육 수준, 직업지위, 임금에 미치는 영향

가. 연구 자료 및 대상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교육 수준 및 직업지위,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가 진행된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Korea Employment Education Panel: KEEP Ⅰ)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의 시의성을 고려한다면 최근 구축이 진행 중인 KEEP Ⅱ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지만, 해당 자료는 2016년에 구축하여 현재 7차 자료까지 활용 가능한 단계로 상당수의 패널이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해 직업지위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표본 편의(sampling bias)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 우선 KEEP Ⅰ 자료를 활용하였고, 부모의 교육 수준과 자녀의 교육비 및 교육 수준을 분석하는 절에서는 KEEP Ⅱ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앞선 분석 결과와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KEEP 조사는 2004년 1차 연도 첫 조사 당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를 대상으로 시작된 패널조사로, 이들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을 종단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1차(2004) 연도 조사에서는 중학교 3학년,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 각각 2,000명을 표본으로 구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학생의 보호자(가구),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행정가(교감 또는 교무주임), 학생의 담임교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후 KEEP 조사에서는 1차 연도부터 계속 추적 조사한 기존 패널에 더해 4차 연도(2007년)에는 신규 패널을, 7차 연도(2010년)에는 보정 패널을 추가하여 조사 대상을 보강하였다.

조사 내용은 조사 당시 학생의 상태(학생, 구직, 취업)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학교생활, 진학계획, 구직활동, 취업 의사 및 준비, 직장경력, 가정생활, 여가생활, 교육훈련, 진로계획, 취업선호도, 가구배경, 현 일자리 특성 등을 포함한다.

본 절에서는 KEEP 조사 대상자 중 1차 조사 당시 중학교 3학년 코호트와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중학교 3학년 코호트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2007년의 4차 연도 조사자료와 이후 12차 연도 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는 1차 연도 조사자료와 9차 연도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시점의 가구 배경이 졸업 후 약 8년 뒤의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코호트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나아가 부모 배경과 자녀의 사회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 변화 검증을 통해 세대 간 사회 이동 가능성이 변화하였는지 검토하고, 교육이 계층 사다리로서 수행하는 기능이 강화되었는지 혹은 약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나. 변수 구성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부모 배경 변수로 부모의 직업지위, 부모의 학력, 가구소득을 활용하였다. 먼저 부모의 직업지위[3]는 아버지와 어머니 중 직업지위가 높은 쪽의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편부모 가정의 경우 동거하는 부모의 직업지위를 활용하였다. 부모의 학력 또한 부모 중 학력이 높은 쪽의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범주형 형태가 아닌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교육연수를 환산한 연속형 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은 조사 당시 전체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한 값이다.

매개변수인 자녀의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후 8년이 지난 시점의 최종 학력을 활용하였으며, 부모의 교육 수준과 마찬가지로 연속형 변수로 교육연수를 환산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자녀의 직업지위와 임금 수준을 활용하였다. 자녀의 직업지위는 부모의 직업지위와 동일하게 국제직업분류와 연계된 국제사회경제지위지수(ISEI)를 활용하였으며, 임금 수준은 월평균 임금을 활용하였다.

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활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와 구조방정식 모형[4] 추정을 위해 STATA 15.0을 활용하였다.

모형 적합도는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과 함께 Comparative Fit Index(CFI), Tucker-Lewis

3)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부모의 직업지위는 국제직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ISCO)와 연계된 국제사회경제지위지수(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ISEI) 점수로, 해당 점수는 한국교육고용패널에서 제공하는 한국직업분류(KECO) 코드에 한국표준직업분류(KSCO)를 연계한 후, KSCO 코드에 다시 국제표준직업분류(ISCO) 코드를 연계하고, 마지막으로 ISCO에 부여된 ISCI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도출됨.

4) 계층간 사다리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 직업, 소득 등 여러 요인이 얽혀 있다. 이에 SEM은 직접효과, 간접효과, 매개효과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어, 각 변수 간의 복잡한 인과 관계를 정밀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Index(TL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을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CFI와 TLI는 값이 0.90 이상일 때, RMSEA 값은 0.05 이하일 때 모형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간주된다(Hu & Bentler,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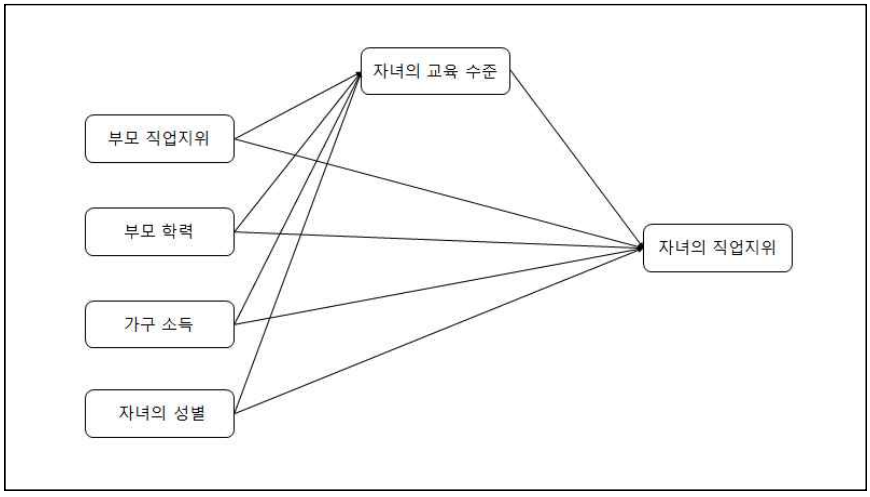
이후 각 변수 간의 경로분석을 통해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자녀 교육 수준의 매개효과를 효과분해를 통해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중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활용하여 자유모델(Unconstrained Model)과 제약모델(Constrained Model)의 비교를 통해 부모의 배경, 자녀의 교육 수준, 자녀의 직업지위 및 임금 수준의 코호트별 집단 차이를 검증하였다.

본 절에서의 주된 가설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자녀의 교육 수준 및 직업지위,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모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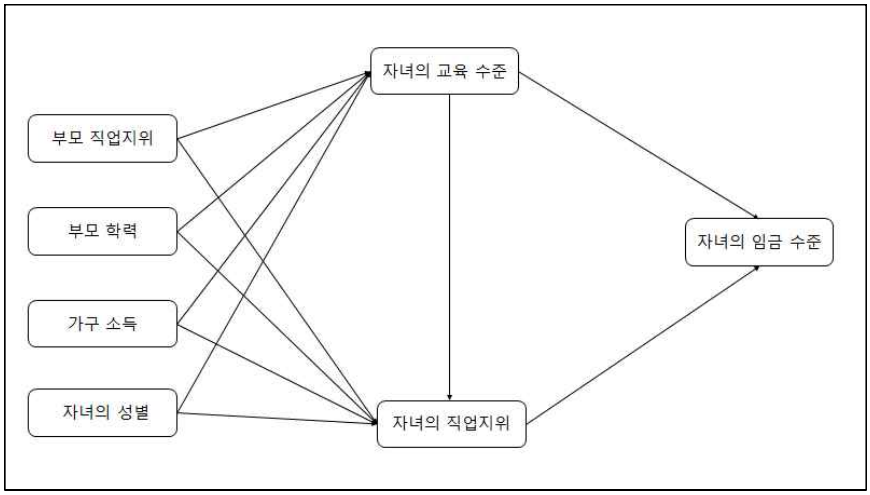
모형 1에서는 자녀의 직업지위(종속변수)를 설명하기 위한 변수로 부모의 직업지위, 학력, 가구소득, 자녀의 성별 등을 활용하였고,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간 매개변수로 자녀의 교육 수준을 활용하고 있다.

모형 2에서는 자녀의 임금 수준(종속변수)을 설명하기 위한 변수로 부모의 직업지위, 학력, 가구소득, 자녀의 성별 등을 활용하였고,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간 매개변수로 자녀의 교육 수준과 자녀의 직업지위를 활용하고 있다.

[그림 2-1]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교육 수준과 직업지위에 미치는 영향(모델 1)



[그림 2-2]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교육 수준, 직업지위,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모델 2)



라.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2005년 고등학교 졸업자와 2008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의 직업지위 점수 평균은 2005년 졸업생이 38.18점으로 2008년 졸업생(43.43점)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부모의 교육 수준 또한 2005년 졸업생은 11.96년으로 2008년 졸업생(13.07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 가구소득도 2005년 졸업생 가구는 262.63만 원으로 2008년 졸업생 가구(332.47만 원) 대비 낮은 수준이었고, 자녀의 교육 수준도 2005년 졸업생이 14.28년으로 2008년 졸업생(14.55)에 비해 다소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였다. 자녀의 직업지위 점수도 2008년(49.91점)에 비해 2005년(48.57점) 졸업자가 다소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으며, 임금 수준은 2008년 졸업자가 191.57만 원으로 2005년(169.07만 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각 코호트별 성별 구성의 경우 2005년 졸업생 집단은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다소 높았으며(남성: 54.57%, 여성: 51.53%), 2008년 졸업생 집단에서는 여성(55.12%)이 남성(45.43%)보다 높았으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기술통계 분석 결과

		2005년 졸업생		2008년 졸업생		t / x2
		mean ± sd / N(%)		mean ± sd / N, %		
부모 직업지위		38.18	± 18.81	43.43	± 19.36	-5.95***
부모 교육 수준(년)		11.96	± 3.39	13.07	± 3.59	-7.52***
가구소득(만 원)		262.63	± 168.78	332.47	± 218.99	-8.31***
자녀의 교육 수준(년)		14.28	± 1.61	14.55	± 1.67	-3.79***
자녀의 직업지위(ISEI)		48.57	± 18.72	49.91	± 18.99	-1.59
임금 수준(만 원)		169.07	± 55.17	191.57	± 67.25	-8.11***
성별	남	585	(54.57)	487	(45.43)	2.95
	여	622	(51.53)	598	(55.12)	

주: ***p 〈 .001, **p 〈 .01, *p 〈 .05

2)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교육 수준과 직업지위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교육 수준과 직업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모형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chi^2(9)$ 880.25(p 〈 .001), CFI와 TLI가 각각 1.000으로 나타났으며, RMSEA는 0.000(pclose=1.000)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모형이 기초모형 대비 우수한 적합도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적합도가 양호함을 의미한다.[5)]

다음으로 부모의 배경, 자녀의 교육 수준, 자녀의 직업지위 경로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교육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두 코호트 모두 부모 학력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2005년 졸업: β=0.19, 2008년 졸업: β=0.27). 부모의 직업지위 효과는 두 세대 모두에서 크기는 제한적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0.13). 가구소득의 효과는 과거 세대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나(β=0.14) 최근 세대에서는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β=0.09). 성별의 경우, 두 집단 모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교육성취를 보였다(2005년 졸업: 0.15, 2008년 졸업: 0.13).

5) 다만 설명력 지표인 Coefficient of Determination(CD)는 0.201로 나타나, 모형이 설명하는 분산의 비율은 다소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음.

둘째, 자녀의 교육 수준이 자녀의 직업지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에서 교육 수준이 직업지위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났으며(2005년 졸업: β=0.37, 2008년 졸업: β=0.40), 이는 자녀의 교육 수준이 직업지위 결정에 핵심적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직업지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부모 학력의 효과가 최근 세대에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2005년 졸업: β=0.11, 2008년 졸업: β=0.19). 반면에 부모의 직업지위와 가구소득의 직접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으며(β = 0.07~0.11), 두 집단 간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의 경우 과거 세대에서는 여성의 직업지위가 남성보다 유리하게 나타났으나(β=0.18), 최근 세대에서는 그 효과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β=0.12).

〈표 2-2〉 코호트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2005년 졸업자 (N=1,207)	2008년 졸업자 (N=1,085)
자녀의 교육 수준 ←	부모 직업지위	0.13***	0.13**
	부모 학력	0.19***	0.27***
	가구소득	0.14***	0.09*
	자녀의 성별	0.15***	0.13***
자녀의 직업지위 ←	자녀의 교육	0.37***	0.40***
	부모 직업지위	0.09*	0.11*
	부모 학력	0.11**	0.19***
	가구소득	0.07*	0.08*
	자녀의 성별	0.18***	0.12***

주: 표준화 회귀계수 값을 제시하였으며, ***p 〈 .001, **p 〈 .01, *p 〈 .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교육성취를 매개로 직업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전형적인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영향의 세대 간 이전 구조는 두 코호트 모두에서 여전히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교육이 부모 세대의 부의 되물림에 핵심 경로로 기능하는 동시에,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교육 및 직업 성과를 규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부모 학력의 영향력은 최근 세대에서 더욱 강화되었으며, 자녀의 교육 수준을 매개로

자녀의 직업지위에 미치는 간접효과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배경(학력)이 자녀의 교육을 통한 계층 재생산 구조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성별에 따른 교육 및 직업 성취 격차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교육성취가 높아지고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에 따른 불평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여전히 교육이 계층 이동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성공을 결정하는 데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 준다. 특히 부모의 학력과 같은 비금전적 자본이 최근 세대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은 정책적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직업지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녀 교육 수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졸업 시점과 관계없이 부모의 학력과 직업지위, 가구소득은 자녀의 교육 수준을 매개로 직업지위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두 코호트 간 영향경로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2005년 졸업자의 경우,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직업지위에 미치는 총효과는 대부분 교육을 매개한 간접효과에 의해 설명되었다. 반면에 2008년 졸업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학력과 직업지위가 자녀의 직업지위에 직접적으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 코호트에서는 직업지위에 대한 부모 배경의 총효과에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유사한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세대에서는 교육이라는 매개를 통해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직업적 지위에 영향을 미쳤지만, 최근 세대에서는 부모의 배경이 교육경로를 통하지 않고도 자녀의 직업적 성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경로가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표 2-3〉 코호트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2005년 졸업자			2008년 졸업자		
		DE	IE	TE	DE	IE	TE
자녀의 교육 수준 ←	부모의 직업지위	0.13***	-	0.13***	0.13**	-	0.13**
	부모 학력	0.19***	-	0.19***	0.27***	-	0.27***
	가구소득	0.14***	-	0.14***	0.09**	-	0.09**
	자녀의 성별	0.15***	-	0.15***	0.13***	-	0.13***
자녀의 직업지위 ←	자녀의 교육	0.37***	-	0.37***	0.40***	-	0.40***
	부모의 직업지위	0.05	0.05***	0.09*	0.06*	0.05**	0.11*
	부모 학력	0.04	0.07***	0.11**	0.08*	0.10***	0.19*
	가구소득	0.02	0.05***	0.07*	0.04	0.04**	0.08*
	자녀의 성별	0.13***	0.05***	0.18***	0.07*	0.05***	0.12*

주: 표준화 회귀계수 값을 제시하였으며, ***p < .001, **p < .01, *p < .05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직업지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녀 교육 수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분석에서 흥미로운 세대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2005년 졸업자의 경우,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직업지위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교육 수준을 매개한 간접효과를 통해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으로 교육이 사회적 지위 상승의 핵심 통로 역할을 했음을 보여 준다.

반면에 2008년 졸업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학력과 직업지위가 자녀의 직업지위에 직접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경로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교육을 거치지 않고도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경향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계층 사다리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부모 배경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커짐으로써 계층 재생산 구조가 더욱 공고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다중집단분석 이후 두 모형 간 적합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10% 유의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LR $\chi^2(9)$ 14.82(p = .096)], 일부 경로에서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3)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교육 수준과 직업지위,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

본 절에서는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교육 수준과 직업지위, 그리고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은 부모의 학력, 직업지위, 가구소득을 개별 변수로 투입하고, 자녀의 교육 수준과 직업지위를 매개변수로, 임금 수준을 결과변수로 설정하였다.

먼저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chi^2(15)$ 1111.16($p < .001$), CFI가 1.000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모형이 기초모형 대비 우수한 적합도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적합도가 양호함을 의미한다.[6]

다음으로 부모의 배경, 자녀의 교육 수준과 직업지위, 임금 수준의 경로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배경과 자녀의 교육경로를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에서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교육 수준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 학력의 효과가 2008년 졸업자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고(β=0.27), 부모의 직업지위 영향력은 큰 차이가 없었으며, 가구소득(2005년 졸업자: β=0.15, 2008년 졸업자: β=0.09)의 영향은 다소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 효과는 두 집단 모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교육성취를 보였다(2005년 졸업: β=0.15, 2008년 졸업: β=0.13).

둘째, 자녀의 교육 수준과 자녀의 직업지위 경로를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에서 교육 수준이 직업지위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났으며(2005년 졸업: β=0.37, 2008년 졸업: β=0.39), 이는 자녀의 교육 수준이 직업지위 결정에 핵심적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부모의 배경과 자녀의 직업지위 경로에서는 부모의 직업지위, 교육 수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직업지위가 높아졌다. 특히 부모의 교육 수준이 자녀의 직업지위에 미치는 영향력은 최근에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005년 졸업: β=0.12, 2008년 졸업: β=0.19),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직업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2005년 졸업: β=0.18, 2008년 졸업: β=0.12) 그 영향력은 다소 감소하였다.

넷째, 자녀의 교육 수준과 직업지위의 임금 수준 경로에서는 두 집단 모두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임금 수준이 높아졌으며, 자녀의 직업지위는 2005년 졸업자의 경우에만 임금 수준에 영향

6) 다만 설명력 지표인 Coefficient of Determination(CD)는 0.255로 나타나, 모형이 설명하는 분산의 비율은 다소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음.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5년 졸업: β=0.17, 2008년 졸업: β=0.14). 또한 앞서 자녀의 성별이 여성일수록 교육 수준이나 직업지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임금 수준의 경우에는 여성일수록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005년 졸업: β=-1.67, 2008년 졸업: β=-1.69).

마지막으로 부모의 배경과 자녀의 임금 수준 경로를 살펴보면, 부모의 학력은 두 집단 모두 자녀의 임금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2005년 졸업: β=0.12, 2008년 졸업: β=0.15), 부모의 직업지위는 2008년 졸업자 집단에서만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고(2008년 졸업: β=0.15), 반대로 가구소득은 2005년 졸업자 집단에서만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2005년 졸업: β=0.11).

〈표 2-4〉 코호트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2005년 졸업자 (N=1,207)	2008년 졸업자 (N=1,085)
자녀의 교육 수준 ←	부모의 직업지위	0.13***	0.12**
	부모 학력	0.19***	0.27***
	가구소득	0.15***	0.09**
	자녀의 성별	0.15***	0.13***
자녀의 직업지위 ←	자녀의 교육 수준	0.37***	0.39***
	부모의 직업지위	0.09*	0.11*
	부모 학력	0.12**	0.19***
	가구소득	0.07*	0.07*
	자녀의 성별	0.18***	0.12***
자녀의 임금 수준 ←	자녀의 교육 수준	0.13***	0.14***
	자녀의 직업지위	0.17***	0.04
	부모의 직업지위	0.01	0.18**
	부모 학력	0.12**	0.15**
	가구소득	0.11**	-0.003
	자녀의 성별	-1.67***	-1.69***

주: 표준화 회귀계수 값을 제시하였으며, ***p < .001, **p < .01, *p < .05

다음으로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직업지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녀의 교육 수준과 직업지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2005년 졸업자 집단에서는 부모 배경이 주로 교육을 매개하여 자녀의 직업지위와 임금에 간접적으로 작용하였으나, 2008년 졸업자 집단에서는 부모의 학력과 직업지위가 자녀의 직업지위와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표 2-5〉 코호트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2005년 졸업자			2008년 졸업자		
		DE	IE	TE	DE	IE	TE
자녀의 교육 수준 ←	부모의 직업지위	0.13***	–	0.13***	0.13**	–	0.13**
	부모 학력	0.19***	–	0.19***	0.27***	–	0.27***
	가구소득	0.14***	–	0.14***	0.09**	–	0.09**
	자녀의 성별	0.15***	–	0.15***	0.13***	–	0.13***
자녀의 직업지위 ←	자녀의 교육 수준	0.37***	–	0.37***	0.40***	–	0.40***
	부모의 직업지위	0.05	0.05**	0.09**	0.06*	0.05**	0.11**
	부모 학력	0.04	0.07***	0.11***	0.08*	0.10***	0.19***
	가구소득	0.02	0.05***	0.07**	0.04	0.04*	0.08*
	자녀의 성별	0.13**	0.05***	0.18***	0.07*	0.05**	0.12***
자녀의 임금수준 ←	자녀의 교육 수준	0.06	0.06***	0.13***	0.12**	0.01	0.14***
	자녀의 직업지위	0.17***	–	0.17***	0.04	–	0.04
	부모의 직업지위	0.01	0.09**	0.09**	0.16**	0.08**	0.24***
	부모 학력	0.09**	0.03**	0.11***	0.15**	0.04**	0.19***
	가구소득	0.11**	0.02*	0.13**	0.00	0.03*	0.03*
	자녀의 성별	-1.67***	–	-1.67***	-1.69***	–	-1.69***

주: 표준화 회귀계수 값을 제시하였으며, ***p 〈 .001, **p 〈 .01, *p 〈 .05

마지막으로 다중집단분석 이후 두 모형 간 적합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5% 유의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LR χ^2(13) 26.66(p = .014)], 2005년 졸업자와 2008년 졸업자 모형 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일부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Wald test를 통해 경로 간 통계적 차이가 유의미한 경우를 확인한 결과, 부모 직업지위

의 임금에 대한 직접효과는 과거에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최근 시기에는 유의하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Wald χ^2=8.04, p<.01).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임금 수준에 있어 부모 배경의 영향력이 일부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다음 절에서는 계층간 사다리의 최근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KEEP Ⅱ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교육비 투자 및 교육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3.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교육비 투자 및 교육 수준에 미치는 영향

가. 연구 자료 및 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6년부터 새롭게 조사가 진행된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 II(Korea Employment Education Panel II: KEEP II) 자료를 활용하였다. KEEP II 조사는 세대별로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에 대한 연구와 능력중심 사회 관련 정책의 성과를 파악하고, 2004년(1차)부터 2015년(12차)까지의 조사를 끝으로 종료된 KEEP I 코호트와의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KEEP II의 2016년 1차 연도 조사 대상은 국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 학생의 보호자(학부모), 학생의 담임교사, 조사 참여 학교의 학교행정가(교감/교무담당)이다. 모집단은 2016년 조사 당시 일반계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학생 대상의 설문에는 학교생활, 학습 및 사교육, 가정생활, 여가생활, 현장체험, 재학 중 근로경험, 진로계획 및 직업의식, 건강, 개인적 특성, 구직활동, 일자리 특성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KEEP II 조사자료 중 현재 활용 가능한 가장 최신의 자료는 7차 연도 조사자료이므로,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에 취업하기까지 충분한 조사 차수가 확보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KEEP II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진학 관련 교육 투자와 자녀의 학력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KEEP II 조사 대상 중 고3 시절의 부모 배경, 대학 진학 준비 등에 관한 설문 내용이 포함된 2차 연도 조사와 가장 최근에 조사된 7차 연도 조사에 참여한 학생으로 한정하였다.

나. 변수 구성

부모 배경 변수로 부모의 직업지위, 부모의 학력, 부모의 소득을 활용하였다. 먼저 부모의 직업지위[7]는 아버지와 어머니 중 직업지위가 높은 쪽의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편부모 가정의 경우 동거하는 부모의 직업지위를 활용하였다. 부모의 학력 또한 부모 중 학력이 높은 쪽의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범주형 형태가 아닌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교육연수를 환산한 연속형 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은 조사 당시 전체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한 값이다.

매개변수인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교육 투자금은 자녀가 고3인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자녀의 교육 수준을 활용하였으며, 부모의 교육 수준과 마찬가지로 연속형 변수로 교육연수를 환산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다. 분석 방법

부모의 학력, 직업지위, 소득 수준을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잠재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모형과 개별 변수를 적용한 모델의 모형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잠재변수를 활용한 모형의 모형 적합도와 설명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잠재변수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자녀의 교육비 지출과 교육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직업지위, 학력, 소득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잠재변수의 지표로 포함하였으며, 자녀의 교육비는 매개변수, 자녀의 최종 교육 수준은 결과변수로 투입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은 측정 척도가 서로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고, 구조방정식 모형 추정 과정에서 해가 수렴하지 않는 문제(non-convergence)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모형의 안정적인 추정을 위해 모든 연속변수를 z 점수(z-score)로 표준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z 점수 표준화는 변수의 원래 분포 형태를 유지하면서 평균을 0, 표

7)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부모의 직업지위는 국제직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ISCO)와 연계된 국제사회경제지위지수(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ISEI) 점수로, 해당 점수는 한국교육고용패널에서 제공하는 한국직업분류(KECO) 코드에 한국표준직업분류(KSCO)를 연계한 후, KSCO 코드에 다시 국제표준직업분류(ISCO) 코드를 연계하고, 마지막으로 ISCO에 부여된 ISCI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도출됨.

준편차를 1로 변환하여 변수 간 척도 차이로 인한 영향을 제거하고 모형의 안정적인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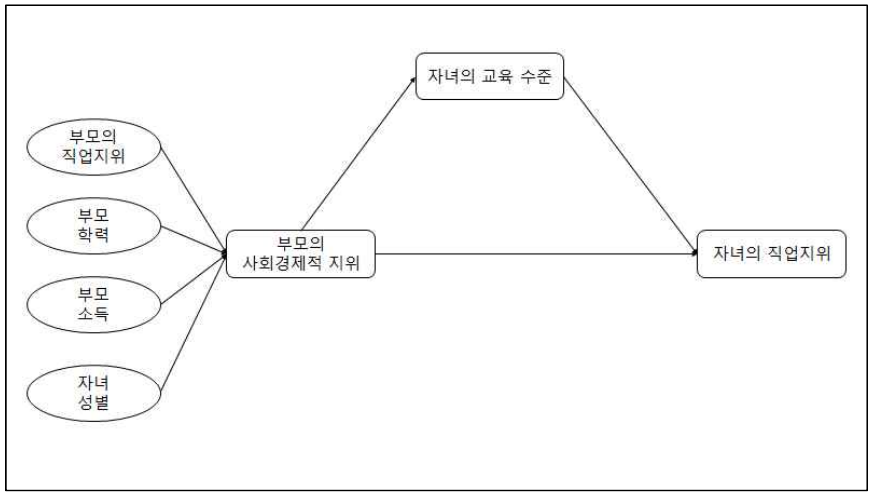
구조방정식의 모형 적합도는 카이제곱과 함께 Comparative Fit Index(CFI), Tucker-Lewis Index(TL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CFI와 TLI는 .90 이상일 때, RMSEA는 0.05 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Hu & Bentler, 1999).

이후 각 변수 간의 경로분석을 통해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자녀 교육 투자비용의 매개효과는 효과분해를 통해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와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 STATA 15.0을 활용하였다.

분석모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모형 3에서는 자녀의 직업지위(종속변수)를 설명하기 위한 변수로 부모의 직업지위, 학력, 가구소득, 자녀의 성별 등을 설명변수로 활용하였고,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간 매개변수로 자녀의 교육 수준과 직업지위를 활용하고 있다.

[그림 2-3] 부모의 배경이 자녀 교육비 투자, 자녀의 교육 수준에 미치는 영향(모델 3)



라.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 분석 대상의 기초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의 직업지위 점수 평균은 49.99점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교육 수준은 14.81년이었다. 부모의 소득은 406.84만 원 정도였으며, 자녀의 교육 수준은 13.8년으로 나타났다.

〈표 2-6〉 기술통계 분석 결과

		mean ± sd / N, %	
부모의 직업지위(점)		49.99	± 19.51
부모의 교육 수준(년)		14.81	± 2.32
부모의 소득(만 원)		406.84	± 467.16
자녀의 교육 수준(년)		13.80	± 2.49
자녀 교육비(만 원)		28.44	± 36.71
성별	남	3,476	(53.59)
	여	3,010	(46.41)

자녀의 진학 준비를 위한 평균 교육비는 28.44만 원 정도 투입되었다. 성별 구성은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높은 비율(남성: 53.59%, 여성: 46.41%)을 보였다.

2)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교육 투자와 교육 수준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 대한 교육 투자와 자녀의 교육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첫째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검정 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카이제곱(χ^2) 검정과 함께 RMSEA, CFI, TLI, SRMR 지수를 활용하였다.

먼저 모형의 카이제곱 검정(χ^2)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chi^2(6) = 56.95$, $p < .001$)], 카이제곱

통계량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모형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본 결과, RMSEA 값은 .042(90% CI = .032-.052)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CFI(.981)와 TLI(.953)는 기준치인 0.90을 상회하였다. 또한 SRMR 값은 .021로 기준치 .05 이하의 우수한 적합도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설명력 지표인 CD는 .703으로, 전체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설명력을 보였다.

둘째로, 잠재변수로 활용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직업지위, 학력, 소득으로 잘 설명되었다. 각 지표에 대한 표준화 계수는 직업지위(고정 = 1), 학력(β = 1.10, p < .001), 소득(β = 0.39, p < .001)로 모두 유의하였다. 이는 세 지표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적절히 반영함을 시사한다.

셋째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자녀에 대한 교육 투자, 자녀의 교육 수준 간의 경로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과 자녀의 교육 수준에 모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의 영향을 살펴보면,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은 자녀의 교육 수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비에 대한 투자가 자녀의 교육 수준(최종학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로 활용한 자녀 성별의 영향을 살펴보면, 자녀의 성별은 교육비 지출과 교육 수준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코호트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SE	z	p
자녀 교육비 지출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0.60***	0.034	17.72	.000
	자녀의 성별	0.23***	0.028	8.25	.000
자녀의 교육 수준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0.15***	0.030	4.97	.000
	자녀 교육비 지출	0.04*	0.015	2.59	.010
	자녀의 성별	0.79*	0.026	29.84	.000

주: ***p < .001, **p < .01, *p < .05

마지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녀의 교육에 대한 투자 수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교육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별 또한 교육비 지출과 최종 교육 수준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DE	IE	TE
자녀 교육비 지출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59***	-	.59***
	자녀의 성별	.23***	-	.23***
자녀의 교육 수준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15***	.02*	.17***
	자녀 교육비 지출	.04*	-	.04*
	자녀의 성별	.79***	.01*	.80***

주: ***p 〈 .001, **p 〈 .01, *p 〈 .05

종합하면, 최근에도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의 영향이 자녀의 교육 수준에 상당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부모의 학력 → 부모의 직업지위 → 자녀의 사교육비 → 자녀의 교육 수준으로 연결되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해당 변수들의 영향력이 강해질수록 계층 간에 이동할 수 있는 사회적 사다리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으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이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사회제도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소결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계층 간 이동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기존 연구들에서 해당 주제에 접근하였던 방식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이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부모의 직업위세가 자녀의 직업위세나 임금에 미치는 영향까지 범위를 넓히고, 시점별 비교를 통해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두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1차, 2차 코호트(cohort) 자료를 활용하였고, 경로분석(path analysis),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 자녀의 교육경험(수준/투자) → 자녀의 직업성과(직업지위 및 임금 수준) 간의 직간접적 경로계수를 추정하고, 시점별 계층 간 사다리의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여전히 자녀 세대의 학력이나 직업위세, 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교육 성취를 매개로 직업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전형적인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영향의 세대 간 이전 구조는 분석에 활용된 두 시점 모두에서 여전히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교육이 부모 세대의 부의 되물림에 핵심 경로로 기능하는 동시에,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교육 및 직업 성과를 규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계승은 시기가 지날수록 더욱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 학력의 영향력은 최근 세대에서 그 효과가 더욱 증가하였으며, 자녀의 교육 수준을 매개로 자녀의 직업지위에 미치는 간접효과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배경(학력)이 자녀의 교육을 통해 계층 재생산 구조를 심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성별에 따른 교육 및 직업 성취 격차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교육성취가 높아지고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에 따른 불평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넷째, 교육은 여전히 사회적 이동 통로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직업지위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교육 수준을 매개한 간접효과를 통해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으로 교육이 사회적 지위 상승의 핵심 통로 역할을 했음을 보여 준다.

다섯째, 교육은 여전히 사회적 이동 통로로 작동하고 있지만 그 영향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를 보면 부모의 학력과 직업지위가 자녀의 직업지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경로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교육을 거치지 않고도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경향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계층 사다리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부모 배경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커짐으로써 계층 재생산 구조가 더욱 공고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앞선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교육이 여전히 계층 이동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고, 부

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성공을 결정하는 데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 준다. 특히 부모의 학력과 같은 비금전적 자본이 최근 세대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은 정책적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III.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 검토해 보자.

연구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교육성취를 매개로 직업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전형적인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세대 간 이전 구조가 여전히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교육이 부모 세대의 부의 되물림에 핵심 경로로 기능하는 동시에,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교육 및 직업 성과를 규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성별에 따른 교육 및 직업 성취 격차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성의 교육성취가 높아지고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에 따른 불평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교육이 여전히 계층 이동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성공을 결정하는 데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 준다. 특히 부모의 학력과 같은 비금전적 자본이 최근 세대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은 정책적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 세대로 이전되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다. 경제성장에 따라 빈곤의 문제보다는 양극화의 문제가 심화된 현실에서 원활한 사회 이동은 이를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1. 계층 간 사다리 복원을 위한 교육 정책

계층 간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출발선의 평등 보장이다. 이는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여 출발선에서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으로, 무상교육의 단계적 확대(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장학금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취약계층 대상 교육비 지원(저소득층 학생에게 급식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 실질 지원 강화, 학령기 아동을 위한 맞춤형 돌봄 및 학습 지원 확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및 지원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공교육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이는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공정한 경쟁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사 질 개선 및 지역격차 해소 [농어촌·도서산간 지역에 우수 교사 배치 유도(인센티브 강화), 순환근무제, 원격교육 인프라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맞춤형 학습 지원 강화(학습 부진아 대상 튜터링, 방과 후 보충수업 체계화, 특수교육 및 다문화 학생 지원 강화)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AI·디지털 기반 스마트 교육 확대(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 무상 제공, 학교별 스마트 기기 보급 및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 등도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사교육 격차 해소이다. 사교육비는 자녀의 교육 수준으로 연결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으므로 부모의 소득에 따라 교육기회가 좌우되지 않도록 사교육 의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교 안에서의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 강화(방과 후 학교 확대 및 질 향상, 교내 심화·보충 수업 정규화)가 필요하며, 입시제도 공정성 강화[수시·정시 간 형평성 확보 및 자기소개서 폐지 등 평가요소 단순화, 고교서열화 해소(자사고·외고 폐지 또는 일반고 전환)] 등의 정책이 순차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 이는 대학 진학과 고등교육에 대한 공정한 접근 기회를 보장하자는 차원에서의 제언이 될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확대[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 장학금(기숙사비, 식비 등) 지원 확대, 청년 맞춤형 대출제도(무이자, 졸업 후 상환 등) 정비] 및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지역균형 인재 전형 확대, 지역 거점대학 육성 및 지역 인재 유치 지원)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직업교육 및 평생학습 강화가 필요하다. 이는 대학 진학 외의 다양한 진로를 존중하고, 평생 계층 상승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활성화(실습 인프라 및 기업 연계 확대, 졸업 후 취업 연계 지원 및 경력 관리 체계 구축)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 및 재교육 지원(성인 학습자 대상 온라인 학위과정, 직업 전환 프로그램 운영, 고졸 및 중장년층 대상 커리어 전환 교육) 등이 계층 간 사다리를 작동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보 부족으로 기회를 잃지 않도록 공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며, 또 다른 차원에서 사교육화되고 있는 진로·진학 정보를 공공화함으로써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진로 상담, 입시정보, 장학금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 제공,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 확대(예: EBS+AI 활용) 등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될 수 있다.

2. 계층 간 사다리 복원을 위한 고용노동 정책

노동시장은 계층 이동의 가장 결과론적이며 현실적인 통로라고 판단된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청년층의 고용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첫 일자리의 질이 평생 소득이나 계층 이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청년 인턴 채용 연계 프로그램 확대(공공기관,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한 인턴십 운영, 수료자 우선 채용 및 취업 연계체계 구축), 청년 맞춤형 직무훈련 강화(디지털·AI·친환경 등 신산업 분야 직업훈련 확대, 직업계고-전문대-산업체 연계 맞춤형 훈련모델 개발), 청년 고용장려금 강화(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세제 혜택 제공), 공공 청년 일자리 확충(지역 청년센터, 문화기획, IT 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등이 실천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보호 및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일자리의 질이 곧 삶의 질이며, 고용 안정이 계층 사다리의 기반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속 추진(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화, 민간부문 차별 해소), 동일노동·동일임금 실질적 적용(정규직 전환 유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단기계약·플랫폼 노동자 보호),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적용(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 명확화 및 권익 보장) 등이 구체적 실현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직업훈련 및 전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한 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계층 사다리가 작동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제언할 수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확대(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수요자 중심 직무훈련 강화,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대상 재취업 중심 교육 확대)가 중요하며, 중장년 전직 지원(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 피해자 대상 전직 프로그램 운영, 전직 컨설팅, 심리 상담, 재취업 박람회 연계 등 원스톱 지원) 등도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 시대 대비 교육(AI, 빅데이터, 디지털 마케팅 등 핵심역량 교육과정 개설, 비IT 직종 종사자 대상 디지털 문해력 향상 교육 제공) 등도 정보 형평성을 위해 제언할 수 있다.

넷째, 공정한 노동시장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차별 없는 노동시장은 계층 상승의 필수조건이라는 인식하에 제언할 수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으로는 공정 채용 제도 강화(블라인드 채용 확대, 출신학교·학벌 중심 관행 개선, 채용비리 처벌 강화 및 채용 프로세스 투명화)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직장 내 차별 금지 및 괴롭힘 방지(성별·학력·나이·지역 차별 금지 제도적 강화, 괴롭힘 신고 보호 및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도 공정한 노동시장 환경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노동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유연근무제 활성화, 가족돌봄휴직 활성화,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도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

다섯째, 사회적 일자리 및 취약계층 고용 확대가 필요하다. 이는 민간 일자리만으로 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 간소화 및 지원금 확대)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취약계층 고용 우선 지원(장애인, 노인, 경력단절여성 등 맞춤형 일자리 연계, 보호종료아동, 탈북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별도 채용 트랙 운영) 등은 이미 많이 운영되고 있지만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기반 고용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지역 일자리 격차는 곧 계층 이동의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 혁신형 일자리 창출(지자체-대학-기업 협업을 통한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지역 청년 정착 지원: 지역 장학금 + 지역기업 연계 취업) 정책이나 광역 일자리 플랫폼 구축(지역 고용센터 기능 강화 및 온라인-오프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 생활권 내 고용 서비스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을 보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3. 계층간 사다리 복원을 위한 사회복지적 정책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에 의한 구조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교육, 노동시장, 주거 등에서 세습적 불평등 구조를 막는 역할 즉, "노력"이 아닌 "배경"이 계층을 결정하는 사회는 복지적 개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사회 통합 기능의 차원에서는 상·하위 계층 간의 괴리를 줄이고, 갈등 예방, "나도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이 사회의 연대감과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예방적 복지(preventive welfare) 차원에서 빈곤에 빠지고 난 뒤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계층 추락을 예방하는 정책(예: 청년의 초기 사회 진입기 지원 → 미래의 빈곤층 발생 가능성 감소)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포용적 복지국가” 기조 속에서 청년, 여성, 노인 등 계층별 맞춤형 이동 사다리 정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청년 기본소득을 통한 청년 기회사다리 사업을 실시하여 "복지+기회 결합형" 사회복지 모델을 실험 중에 있다. 특히, 경기도의 청년 기본 소득 사업의 경우엔 청년의 삶의 질과 자본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결국 계층간 사다리의 회복을 위해서는 출발선상의 평등도 중요하지만, 교육, 노동, 복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들이 개인들의 생애 과정 속에서 다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표 2-7〉 계층간 사다리 복원을 위한 필요 정책

분야	필요 정책	세부 내용
교육	출발선의 평등 보장	· 무상교육의 단계적 확대 ·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공교육의 질 제고	· 교사 질 개선 및 지역격차 해소 · 맞춤형 학습 지원 강화 · AI·디지털 기반 스마트 교육 확대
	사교육 격차 해소	· 학교 안에서의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 강화 · 입시제도 공정성 강화 · 고교서열화 해소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강화	· 국가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확대 · 청년 맞춤형 대출제도 ·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서울대 10개 만들기)
	직업교육 및 평생학습 강화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활성화 · 평생교육 및 재교육 지원
	교육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 교육정보 국가 통합 제공 · 온라인 학습 플랫폼 확대
고용노동	청년층의 고용 확대	· 청년 인턴 채용 연계 프로그램 확대 · 청년 맞춤형 직무훈련 강화 · 청년 고용장려금 강화 · 공공 청년 일자리 확충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	·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속 추진 · 동일노동·동일임금 실질적 적용 ·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직업훈련 및 전직 지원 강화	· 직업능력개발훈련 확대 · 중장년 전직 지원 · 디지털 전환 시대 대비 교육
	공정한 노동시장 환경 조성	· 공정 채용 제도 강화 · 직장 내 차별 금지 및 괴롭힘 방지 · 노동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
	사회적 일자리 및 취약계층 고용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 취약계층 고용 우선 지원
	지역 기반 고용 인프라 확충	· 지역 혁신형 일자리 창출 · 광역 일자리 플랫폼 구축
사회복지	예방적 복지 실현	· 청년층 초기 사회 진입 지원
	포용적 복지 실현	· 취약계층 맞춤형 이동사다리 정책 · 청년 기본소득

참고문헌

〈국내 문헌〉

고영우·신영민·이성원·이지은·황규성(2024). “한국의 세대 간 사회이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김연아·정원오(2016). 비정규직의 세대 간 전승 – 부모 세대의 직업적 지위가 자녀 세대의 비정규직 여부에 미치는 영향, 비판사회정책(50), pp. 334~377.

김영미(2016).「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 형성에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 불평등」,『사회과학논집』47 (2), pp. 27~52.

김위정(2012).「계층 간 학력격차의 변화: 학교 정책의 영향을 중심으로」,『교육사회학연구』22 (3), pp. 49~76.

남기곤(2008).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 및 직업지위에 미치는 효과 – 국제비교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7(1), pp. 61~92.

박병영 · 김미란 · 김기헌 · 류기락 · 이선형(2011). 『교육과 사회계층 이동 조사 연구(Ⅳ): 1976~1986년 출생집단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변수용 · 이성균(2021).『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교육 결과』. 박영스토리.

안종범·전승훈(2008).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현황과 특징”, 노동정책연구, 제8권 제3호. 한국노동연구원.

안준기·배호중(2011). 대학 재학시절 근로활동이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 생계형 근로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1(4), pp. 149~180.

우광호·안준기·황성수(2010). 교육 및 부의 세대 간 이전: 대학생활을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연구, 19(3), pp. 121~150.

유홍준·김월화 (2006). 한국 직업지위지수, 한국사회학, 40(6), pp. 153~186.

이영욱(2023).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KDI FOCUS, vol. 11.

임창규·윤인진(2011). “세대 간 직업계층의 계승과 직업 지속성 간의 관계”, 직업능력개발연구 제14권 제2호, pp. 127~151, 2011. 8.

장상수(2016),「벌어지는 틈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 성적에 미치는 영향의 증가」,『한국사회학』, 50 (5), pp.107~140.

_____ (2000).「교육 기회의 불평등: 가족 배경이 학력성취에 미치는 영향」,『한국사회학』34 (3), pp. 671~708.

최필선·민인식(2015). 부모의 교육과 소득 수준이 세대 간 이동성과 기회 불균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2(3), pp. 31~56.

〈국외 문헌〉

Byun, Soo-yong and Kyung-keun Kim(2007). “Parental Involvement and Student Achievement in South Korea: Focusing on Differential Effects by Family Background”,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8 (1), pp. 39~66.

Fleurbaey, M., & Peragine, V. (2013). Ex ante versus ex post equality of opportunity. Economica, 80(317), 118–130. https://doi.org/10.1111/j.1468-0335.2012.00941.

Hu, P. M. Bentler(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ol.6, No.1, pp.1~55, 1999. DOI: https://doi.org/10.1080/10705519909540118

Iannelli, M. A., Pietrini, F., Fiore, L., Petrilli, L., & Massacci, A. (2002). Antioxidant response to cadmium in Phragmites australis plants. Plant Physiology and Biochemistry, 40(11), 977–982. https://doi.org/10.1016/S0981-9428(02)01455-9

Park, Hyunjoon(2007). “South Korea: Educational Expansion and Inequality of Opportunity for Higher Education”, pp. 87~112 in Stratification in Higher Education: A Comparative Study, edited by Y. Shavit, R. Arum, and A. Gamora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Peter M. Blau & Otis Dudley Duncan(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John Wiley & Sons, New York, USA, 1967.

Pierre Bourdieu & Jean-Claude Passeron(1977). “Reproduction in Education, Society and Culture”. Sage Pubkications, 1977.

Pitirim Aleksandrovich Sorokin's (1927). “Social Mobility”, Harper & Brothers. New York, 1927.

Richard A. Cloward & Lloyd E. Ohlin(1960). “Delinquency and Opportunity: A Theory of Delinquent Gangs”. John Wiley & Sons, New York, 1960.

Abstract

Does the ladder between social classes still exist?

This study explores intergenerational mobility in South Korea by examining the influence of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on children's educational attainment and labor market outcomes. Extending beyond general SES effects, the analysis focuses on the role of parental occupational prestige in shaping offspring's occupational status and wages. By employing a longitudinal perspective and comparing different time periods, the study provides new insights into the dynamics of social mobility and contributes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structural inequality in Korean society. This study investigates intergenerational mobility in South Korea by analyzing the extent to which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influences their children's educational attainment, occupational prestige, and earnings. The analysis utilizes data from the 1st and 2nd cohorts of the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 provided by the KRIVET, and employs path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findings reveal five key insights. First,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continues to significantly affect the educational and labor market outcomes of the next generation. Second,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ocio-economic status has intensified over time. Third, although gender disparities in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attainment have narrowed, they still persist. Fourth, education remains a central pathway for social mobility. Fifth, while education continues to serve this function, its impact has weakened in recent years. Notably, non-monetary capital—such as parental educational attainment—has become increasingly influential in determining outcomes among recent generations. This trend offers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highlighting the need for efforts to reduce inequalities in access to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to foster a more equitable environment for social competition.

Keywords: social ladder, social mobility,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occupational prestig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표 부록-1〉 국제표준직업분류별 ISEI

국제표준직업분류		ISEI
코드	코드명	
1111	의회의원	68.77
1112	정부 고위 공무원	78.76
1114	특수이익단체의 고위임원	71.29
1120	사장 및 최고 경영자	70.34
1213	정책 및 기획 관리자	70.57
1211	재무 관리자	73.38
1212	인사 관리자	74.79
1219	그외 경영지원 및 행정 관리자	68.54
1221	영업 및 마케팅 관리자	71.39
1222	광고 및 홍보 관리자	75.25
1223	연구 및 개발 관리자	81.92
1345	교육 관리자	65.01
1349	그외 전문 서비스업 관리자	65.01
1346	금융 및 보험 서비스 지점 관리자	65.01
1342	보건 서비스 관리자	65.01
1341	보육 서비스 관리자	65.01
1343	양로 서비스 관리자	65.01
1344	사회 복지 관리자	65.01
1330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업 관리자	78.86
1322	광업 관리자	61.57
1323	건설업 관리자	59.89
1324	공급, 유통업 및 관련분야 관리자	58.07
1321	제조업 관리자	65.42
1311	농림업 생산 관리자	49.48
1312	양식업 및 어업 생산 관리자	49.48
1420	소매 및 도매업 관리자	51.56
1439	그외 서비스업 관리자	51.01
1411	호텔 관리자	43.85
1431	스포츠, 여가 및 문화센터 관리자	51.01
1412	요식업 관리자	43.85
2131	생명학자, 식물학자, 동물학자 및 관련 전문가	80.46
2132	농학, 임학 및 수산학 전문가	78.17
2133	환경보호 전문가	80.46

국제표준직업분류		ISEI
코드	코드명	
2111	물리학자 및 천문학자	84.61
2112	기상학자	84.61
2113	화학자	83.5
2114	지질학자 및 지구 물리학자	86.81
2120	수학자, 보험계리사 및 통계전문가	81.78
2632	사회학자, 인류학자 및 관련 전문가	83.09
2633	철학자, 역사학자 및 정치학자	83.81
2634	심리학자	85.85
2631	경제학자	80.92
3141	생명과학 기술공	54.86
3213	제약기술자 및 보조원	48.66
3142	농학 기술공	58.05
3143	임학 기술공	54.86
3111	화학 및 물리학 기술공	55.03
3119	그외 자연과학 및 공학 기술공	51.35
3314	통계, 수학 및 관련 준전문가	69.76
2152	전자공학 전문가	80.75
2153	통신공학 전문가	80.75
2511	시스템 분석가	74.66
2522	시스템 관리자	75.13
2512	소프트웨어 개발자	74.66
2513	웹 및 멀티미디어 개발자	74.66
2514	응용 프로그래머	74.66
2519	그외 소프트웨어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자 및 분석가	74.7
2521	데이터베이스 설계자 및 관리자	75.13
2523	컴퓨터 네트워크 전문가	75.13
2529	그외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전문가	75.13
3511	정보통신기술 운영 기술공	61.07
3512	정보통신기술 사용자 지원 기술공	62.45
3513	컴퓨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기술공	62.45
3514	웹 기술공	62.45
3521	방송 및 시청각 기술공	56.57
3522	통신 공학 기술공	56.5
2161	건축기사	79.74
2142	토목공학 전문가	81.4

국제표준직업분류		ISEI
코드	코드명	
2162	조경기사	79.74
2164	도시 및 교통 설계 전문가	79.74
2165	지도 제작 전문가 및 측량기사	72.96
3112	토목공학 기술공	59.35
2145	화학공학 전문가	82.31
3116	화학공학 기술공	59.45
2146	광산공학 전문가, 금속공학 전문가 및 관련 전문가	79.31
2149	그외 공학 전문가	78.69
3117	광산 및 금속공학 기술공	62.79
2151	전기공학 전문가	80.78
3113	전기공학 기술공	51.92
3114	전자공학 기술공	56.38
2141	산업 및 생산 공학 전문가	79.05
2144	기계공학 전문가	77.1
3115	기계공학 기술공	53.77
3257	환경, 산업 및 보건 위생 검사관 및 종사자	57.25
2263	환경. 산업 및 보건 위생사	75.43
2143	환경공학 전문가	79.05
3132	소각로 및 수질관련 설비 운영자	37.22
3153	항공기 조종사 및 관련 준전문가	73.71
3151	선박 기관사	56.41
3152	선박 갑판사 및 항해사	52.7
3154	항공교통 관제사	69.24
3155	항공안전 전자분야 기술자	67.04
3118	제도사	50.73
2212	전문의사	81.92
2211	일반의사	88.7
2267	검안사 및 시력측정 의사	75.43
2230	전통의학 및 보완의학 전문가	76.98
2261	치과의사	88.31
2250	수의사	84.14
2262	약사	81.13
2221	간호사	68.7
2222	조산사	68.7
2265	영양사 및 영양학자	65.23

국제표준직업분류		ISEI
코드	코드명	
3212	의학 및 병리 실험실 기술자	57.37
3211	의료 영상 및 치료 장비 기술자	57.04
3214	의료 및 치과 보철 기술자	54.92
3251	치과 보조원 및 치료사	47.83
2264	물리치료사	67.94
2269	그외 보건 전문가	75.43
3255	물리치료 기술자 및 보조원	53.15
2240	준의료 활동 종사자	76.98
2266	청각 전문가 및 언어치료사	75.43
3230	전통의학 및 보완의학 준전문가	51.57
3258	구급차 종사자	53.15
3253	공중보건 종사자	53.15
3254	안경사	59.85
3252	의료 기록 및 보건 정보 기술자	53.15
3221	간호 준전문가	56
3222	조산 준전문가	51.93
3256	의료 보조원	44.92
3259	그외 보건 준전문가	61.91
2635	사회복지사 및 상담 전문가	70.5
5311	보육 종사자	24.98
2423	인사 및 경력 전문가	68.55
3412	사회사업 준전문가	52.72
2636	종교전문가	71.55
3413	종교 준전문가	54.54
2310	대학교수 및 고등교육 교육자	85.41
2330	중등교육 교사	82.41
2341	초등교육 교사	76.49
2352	특수교사	70.89
2342	유아교육 교육자	58.77
2353	기타 언어 교사	68.88
2356	정보통신 강사	68.88
2320	직업교육 교육자	72.3
5165	운전 강사	30.59
2354	기타 음악교사	68.88
2355	기타 예능교사	68.88

국제표준직업분류		ISEI
코드	코드명	
2359	그외 교육 전문가	66.42
2351	교육방법 전문가	77.88
2611	변호사	86.72
2612	판사	88.96
2611	변호사	86.72
3411	법률 및 관련 준전문가	57
2619	그외 법률 전문가	81.05
2422	정책 운영 전문가	72.94
2424	훈련 및 인력 개발 전문가	70.09
2411	회계사	76.65
3331	통관 및 운송 대리인	54.62
2421	경영 및 조직 분석가	70.09
2413	금융 분석가	75.5
2412	금융 및 투자 자문가	75.5
3334	부동산 중개인 및 자산관리사	62.39
2120	수학자, 보험계리사 및 통계 전문가	81.78
3311	증권 및 금융 거래인 및 중개인	72.27
3315	평가사 및 손해 사정인	57.68
2431	광고 및 마케팅 전문가	73.91
2431	광고 및 마케팅 전문가	73.91
2432	홍보 전문가	73.91
3332	회의 및 행사기획자	56.64
3323	바이어	56.35
2433	기술 및 의료 영업 전문가	73.91
2434	정보통신기술 영업 전문가	73.91
3324	무역 중개인	61.18
3322	판매 대리인	57.03
2641	작가 및 관련 분야 저술가	72.83
2642	언론인	72.83
2643	번역가, 통역가 및 기타 언어 전문가	80.92
2621	기록보관원 및 학예연구사	77.19
3433	미술관, 박물관 및 도서관 기술자	50.15
2622	사서 및 관련분야 정보 전문가	70.4
2654	영화, 연극 관련 감독 및 제작자	63.31
2655	배우	70.1

국제표준직업분류		ISEI
코드	코드명	
5241	패션 및 기타 모델	39.73
2656	라디오, 텔레비전 및 기타 미디어 아나운서	54
3435	기타 예술 및 문화 준전문가	50.15
2651	시각 예술가	61.82
3431	사진가	50.15
2652	음악가, 가수 및 작곡가	64.44
2653	무용가 및 안무가	61.82
2659	그외 창작 및 공연 예술가	37.59
2163	제품 및 의상 디자이너	79.74
3432	인테리어 디자이너 및 장식가	57.64
2166	시각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79.74
3422	스포츠 강사 및 경기임원	50.9
3421	운동선수	50.9
3423	체력단련 및 레크리에이션 강사 및 프로그램 진행자	50.9
5164	애완동물 미용사 및 동물 관리 종사자	30.59
3434	주방장	50.15
3339	그외 사업 서비스 대리인	59.89
3352	정부 세무 공무원	67.11
4312	통계, 금융 및 보험 사무원	57.38
3351	세관 및 국경 검사관	65.64
3359	그외 정부 규제 준 전문가	64.4
3353	정부 사회복지 공무원	54.27
3354	정부 인허가 공무원	59.18
4412	우편배달 및 분류사무원	27.52
4419	그외 사무 종사자	44.72
4416	인사 사무원	42.3
4321	자재 사무원	32.5
4322	생산 사무원	41.63
4323	운송 사무원	41.27
3341	사무실 감독관	62.13
4110	일반 사무원	43.33
3313	회계 준전문가	55.25
4311	회계 및 부기 사무원	50.37
4313	급여 담당 사무원	50.57
3342	법률 비서	57.99

국제표준직업분류		ISEI
코드	코드명	
3343	경영 및 행정 비서	54.55
3344	의료 비서	57.99
4120	비서일반	44.94
4132	자료 입력 사무원	40.56
4411	도서관 사무원	42.3
4415	서류 정리 및 복사 사무원	42.3
4211	은행출납 및 관련 사무원	48.1
3321	보험대리인	60.29
4312	통계, 금융 및 보험사무원	57.38
3312	신용 및 대출 담당자	59.76
4214	대금 수금원 및 관련 종사자	50.05
3359	그 외 정부 규제 준전문가	64.4
4227	설문 및 시장 조사 면접원	39.02
4413	코딩, 교정 및 관련 사무원	51.77
4221	여행 컨설턴트 및 사무원	49.3
4222	고객안내 사무원	39.02
4223	전화교환원	38.58
4224	호텔접수원	39.02
4226	접수원	39.02
4229	그외 고객 안내 종사자	39.02
4225	문의 처리 사무원	39.02
3333	고용 및 계약 대리인	60.44
4131	타자원 및 문서 작성원	48.27
4213	전당업자 및 대금업자	50.05
4414	대서 및 관련 종사자	54.67
3355	경찰 수사관 및 형사	63.03
5412	경찰관	51.5
5411	소방관	46.38
5413	교도관	48.13
5414	경비원	23.8
5419	그외 보안 서비스 종사자	33.83
5321	보건 보조원	26.64
5322	가정 주재 개인 보호 종사자	21.64
5312	교사 보조원	24.98
5329	그외 보건 서비스 분야 개인 보호 종사자	26.64

국제표준직업분류		ISEI
코드	코드명	
5141	이용사	31.08
5142	미용사 및 관련 종사자	31.08
5169	그외 대인서비스 종사자	32.75
5163	장의사 및 시신 방부처리사	34.25
3240	수의학 기술자 및 보조원	24.79
5161	점성가, 점술가 및 관련 종사자	32.75
5162	말벗 및 시중원	24.07
5111	여행 수행원 및 관리원	46.76
5112	운송 안내원	38.44
5113	여행 안내원	47.42
5151	사무실, 호텔, 기타 시설의 청소 및 관리 감독자	25.2
4212	마권업자, 도박진행원 및 관련 게임 종사자	48.82
9621	전령, 소화물 배달원 및 수하물 운반원	25.06
5120	요리사	24.53
5132	바텐더	25.04
5246	음식 서비스 카운터 직원	39.04
5131	웨이터	25.04
3322	판매 대리인	57.03
5242	상품판촉원	39.04
5221	상점 운영자	35.34
5222	상점 관리자	44.14
5211	상점 및 시장 판매원	28.84
5223	상점 판매 보조원	28.48
5230	계산원 및 매표원	30.9
5249	그외 판매 종사자	39.04
5244	고객센터 판매원	38.88
5243	방문판매원	39.04
5212	거리 음식 판매원	23.53
9520	행상	25.2
6111	밭작물 및 채소 재배자	11.56
6114	복합작물 재배자	12.87
6130	복합작물 재배 및 동물 사육자	17.79
6112	나무 및 관목 작물 재배자	18.95
6113	원예사, 원예 및 모종 재배자	20.91
6121	가축 및 낙농 사육자	21.13

국제표준직업분류		ISEI
코드	코드명	
6122	가금류 사육자	19.83
5164	애완동물 미용사 및 동물관리 종사자	30.59
6123	양봉 및 양잠 업자	28.04
6129	그외 동물 사육자	28.04
6224	수렵원 및 포획원	11.01
6210	임업 및 관련 종사자	19.78
6221	수산양식 종사자	17
6222	내수면 및 연안 종사자	13.35
6223	원양어업 종사자	20.69
7512	제빵원, 제과원 및 사탕류 제조원	23.57
7511	정육원, 어류취급원 및 관련 식품 가공원	20.95
7515	식품 및 음료 검사원 및 등급원	34.12
7516	담배가공원 및 담배제품 제조원	26.96
7514	과일, 채소 및 관련 보존원	22.79
3122	제조업 감독자	40.54
7513	유제품 제조원	27.3
7532	의류 및 관련 패턴사 및 재단사	24.88
7533	재봉, 자수 및 관련 종사자	21.24
7536	제화원 및 관련 종사자	18.07
7318	섬유, 가죽 및 관련 제품 수공예 종사자	28.97
7534	장식 및 관련 종사자	22.25
7535	모피가공원, 무두질원	28.08
7531	양복, 양장, 모피제품 및 모자 제조원	23.47
7521	목재가공원	21.81
7543	제품등급원 및 검사원	43.19
7522	가구 제작원 및 관련 종사자	25.23
7312	악기제조원 및 조율사	35.66
7316	간판 제작원, 장식 도장원, 조각원 및 식각원	30.14
7222	공구제조원 및 관련 종사자	33.16
7211	금속 주형원 및 코어 제작원	28.03
7221	대장원 및 단조원	25.63
7212	용접원 및 화염절단원	28.52
7213	판금 작업원	25.51
7231	자동차 정비원 및 수리원	30.78
7232	항공기 정비원 및 수리원	47.74

국제표준직업분류		ISEI
코드	코드명	
7233	농업 및 산업 기계 정비원 및 수리원	31.72
7234	자전거 및 관련 수리원	31.15
7412	전기 정비원 및 설치원	36.92
7127	공조 및 냉각 정비원	25.26
7215	삭구 설치원 및 케이블 연결원	28.6
7422	정보통신기술 설치원 및 수리원	36.92
7311	정밀기기 제조원 및 수리원	35.7
7421	전자 정비원 및 수리원	43.76
7549	그외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43.19
7411	건물 및 관련 전기원	36.35
7413	전선 설치원 및 수리원	39.45
7214	구조용 금속 제작원 및 설치원	26.6
7111	주택 건축원	33.76
7119	그외 건물 골조 및 관련분야 종사자	26.92
7114	콘크리트 타설 및 마감관련 종사자	21.96
7113	석공, 석재절단원, 분할원 및 조각원	23.96
7115	목공	26.62
7112	벽돌공 및 관련 종사자	22.57
3123	건설업 감독자	37.83
7123	미장공	18.02
7121	지붕 시공원	22.16
7124	단열공	27.81
7122	바닥재 시공원 및 타일 부착원	22.75
7125	유리 부착원	24.09
7131	도장원 및 관련 종사자	22.77
7132	분무도장 및 광택 작업원	24.49
8111	광원 및 채석원	35.07
9312	토목 단순 종사원	17.56
3121	광업 감독자	37.83
7541	잠수부	27.3
7542	점화원 및 발파원	27.3
7317	목재, 바구니 및 관련 제품 수공예 종사자	28.95
7319	그 외 수공예 종사자	30.35
7313	보석 및 귀금속 작업원	28.12
7126	배관공	29.16

국제표준직업분류		ISEI
코드	코드명	
7133	건물구조 청결원	30.47
7544	소독원 및 기타 해충 및 잡초 관리원	55.96
7224	금속광택공, 연석원 및 공구 연마원	33.9
7314	도공 및 관련 종사자	24.43
7315	유리 제조원 및 절단원, 연마원 및 마감원	25.78
7321	인쇄전 공정 기술자	35.33
7322	인쇄원	30.49
7323	인쇄 마감 및 제책 종사자	28.24
8160	식품 및 관련 제품 기계 조작원	18.13
8151	섬유 가공기, 방적기 및 권사기 조작원	17.85
8154	표백, 염색 및 직물 세척 기계 조작원	16.08
8152	직조기 및 편직기 조작원	18.03
8156	신발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원	20.35
8153	재봉기 조작원	13.24
8155	모피 및 가죽 가공기계 조작원	20.35
8159	그외 직물, 모피 및 가죽 제품 기계 조작원	21.2
8157	세탁기 조작원	16.8
3134	석유 및 천연가스 정제 설비 운영자	33.66
8131	화학제품 장치 및 기계조작원	29.14
3133	화학공정 설비 관리자	33.66
8141	고무제품 기계 조작원	23.09
8142	플라스틱 제품 기계 조작원	24.85
8219	그외 조립원	24.68
8121	금속 가공장치 조작원	30.32
3135	금속생산 공정관리자	33.66
8122	금속 마감, 도금 및 도장 기계 조작원	22.36
8181	유리 및 요업장치 조작원	21.13
8114	시멘트, 석재 및 기타 광물제품 기계 조작원	26.13
8112	광물 및 석재 가공장치 조작원	25.11
7223	금속 작업용 기계 공구 조정원 및 조작원	28.7
8182	증기기관 및 보일러 조작원	23.19
3139	그 외 공정제어 기술공	31.46
8211	기계 조립원	27.91
3131	동력 생산 시설 운영자	46.73
8189	그외 고정 장치 및 기계 조작원	24.16

국제표준직업분류		ISEI
코드	코드명	
8212	전기 및 전자 장비 조립원	23.88
8311	기관차 운전원	45.76
8312	철도 제동, 신호기 및 개폐기 조작원	29.8
8322	승용차, 택시 및 밴 운전원	30.34
8331	버스 및 전차 운전원	26.85
8332	트럭 및 화물차 운전원	25.95
8321	오토바이 운전원	28.48
8343	기중기, 권양기 및 관련 장치 조작원	24.8
8344	지게차 조작원	18.08
8113	시추원, 굴착원 및 관련 종사자	35.82
8341	농업 및 어업 이동장치 조작원	13.34
8342	토사운반 및 관련 장치 조작원	24.45
8350	선박 갑판원 및 관련 종사자	37.92
8172	목재 가공 장치 조작원	19.08
8219	그 외 조립원	24.68
8171	펄프 및 제지 장치 조작원	27.25
8143	종이 제품 기계 조작원	32.67
7523	목공용 기계공구 조정원 및 조작원	20.78
8132	사진 제품 기계 조작원	31.34
8183	포장, 충전 및 라벨기계 조작원	24.15
9311	채광 및 채석 단순 종사원	15.35
9313	건축 단순 종사원	15.35
9622	단편적 업무 종사자	27.91
9333	화물 취급원	17.69
9321	수작업 포장원	17.55
9329	그외 제조업 단순 종사원	16.36
9112	사무실, 호텔 및 기타 시설 청소원 및 도우미	14.21
9122	차량 청소원	14.57
9123	창문 청소원	14.57
9129	그외 청소원	14.57
9510	거리 판매 및 서비스 종사자	13.72
9611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원	14.39
9612	쓰레기 분류원	14.39
9613	환경미화원 및 관련 단순 종사원	13.87
5153	건물 관리인	21.82

국제표준직업분류		ISEI
코드	코드명	
9629	그외 단순 노무 종사자	27.91
5152	가정부	32.2
9111	가정 청소원 및 도우미	16.38
9411	패스트푸드 조리원	16.5
9412	주방 보조원	16.5
5245	주유소 안내원	39.04
9334	선반 진열원	19.66
9211	작물 농장 단순 종사원	11.74
9212	가축 농장 단순 종사원	11.74
9213	혼합형 작물 및 가축농장 단순 종사원	11.74
9214	정원 및 원예 단순 종사원	11.74
9215	임업 단순 종사원	12.01
9216	어업 및 양식업 단순 종사원	12.34
9624	물 및 땔감 수집원	27.91
9623	계기검침원 및 자동판매기 수금원	30.99
9121	세탁원 및 다림질원	14.82
9331	수동 및 페달차량 운전원	20.27
9332	동물 견인차량 및 기계운전원	16.89
110	장교	60.92
210	하사관	51.63
310	군인, 기타 계급	29.18

□ 저자 약력

• 안준기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여전히 계층간 사다리는 존재하는가?

· 발 행 연 월 일　2025년 9월 17일 인쇄
　　2025년 9월 17일 발행
· 발　행　인　고 혜 원
· 발　행　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　　화: (044)415-5000, 5100
　　팩　　스: (044)415-5200
· 등 록 일 자　1998년 6월 11일
· 등 록 번 호　제16-1681호
· I S B N　979-11-424-0802-1 93300
· 인　쇄　처　사단법인 한국나눔복지연합회(02-2285-5450)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값 4,000원〉

www.krivet.re.kr

값 4,000원

93300

9 791142 408021

ISBN 979-11-424-0802-1